

 국토교통부	<h1>보도자료</h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희망을 잇다, 삶을 잇다. 주거복지 로드맵	배포일시	2018. 2. 22.(목) 총8매(본문2)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 과장 이유리, 사무관 이상우 · ☎(044) 201-3372, 3368	
보도일시		2018년 2월 23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23.(금) 10:00 이후 보도 가능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입주자 삶의 질 향상 위해 힘 모은다 국토부 등 7개 기관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주택관리공단(대표이사 백성현),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운),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회장 이홍장)와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약을 23일(금) 체결했다.
 - 협약을 체결한 7개 기관은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인권 존중을 위해 각자 역할을 다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초 공동주택 관계기관 간담회 시 보다 선진화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에 참석자 전원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 협약 체결식을 주재한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공동주택은 그 자체가 작은 하나의 사회다.”라며, “우리 국민의 75%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상생을 실현해 간다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국토부는 이날 협약에 따른 첫 번째 과제로 경비원 고용 안정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 단지들의 사례를 발굴하여 발표했다.
- 이들 단지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응하여 입주민 분담, 관리비 절감, 경비원 출퇴근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주민과 경비원들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각각의 사례들은 단지 규모, 입주 시기, 세대당 경비원 수, 현재 경비원 고용형태, 단지 주변 환경 등 단지별 특성에 따라 다른 단지들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우수사례 >

유형	단지	상생방안	적용 가능한 단지
1	세종 범지기 9단지 아파트	▶입주민이 최저임금 인상분 전액을 부담하여 급여 인상	세대당 경비원수가 적은 단지
2	서울 백련산 힐스테이트3차 아파트	▶에너지 절약, 관리비 절감을 통해 경비원 급여 인상	옥상 태양광, LED 교체 등 에너지 절감 여력이 큰 단지
3	대전 누리아파트	▶야간근무 최소화 및 출.퇴근제 도입	인근에 치안센터가 있는 등 야간 경비 필요성 적은 단지
4	부산 양정 거제 유림아시아드 아파트	▶연차 확대(일요일 휴무제 도입)	일요일 등 특정일에 경비업무가 많지 않은 단지
5	서울 송파 송파동 삼성래미안아파트	▶휴게시간을 늘리되, 실질적 휴식 보장	경비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은 단지

- 국토부 관계자는 “상생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작은 것 하나부터 관계자들이 마음을 모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협약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주택’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p>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상우 사무관(☎ 044-201-33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	--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상 호 협 약 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주택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인권존중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협약서를 체결한다.

1.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는 다음 내용의 실현과 안착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
 - 가.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적 책무를 다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 나. 공동주택이 입주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의 개선과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노력한다.
 - 다.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인권존중 등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 라. 입주자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가 상생하는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2.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주택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은 최고의 공동주택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공동주택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한다.

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자정 노력을 강구하고, 효과적으로 공동주택관리 정책 수행을 지원한다.

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와 동반자 관계임을 공감하며, 상생문화에 대한 입주자의 이해와 호응을 이끌어 내는 데에 기여한다.

3. 이 협약의 시행에 따른 세부 협력사항은 필요할 경우 각 기관별로 별도 협의하여 실행한다.

4. 본 협약서는 각 기관 및 단체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8년 2월 23일

□ 세종 범지기마을 9단지

- 규모 : 9동 687세대 (경비원 5명, 0.73명/100세대)
- 입주일자 : 2015.04.01
- 사례소개
 - 휴게시간(주 3시간, 야 4시간) 조정 없이 '18년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을 입주자가 전액 부담(187→218만원, 세대당 월 2,233원↑)

□ 세종 새샘마을 9단지 아파트

- 규모 : 13동 946세대 (경비원 6명, 0.63명/100세대)
- 입주일자 : 2016.09.26
- 사례소개
 - 휴게시간(주 2시간, 야 4.3시간) 조정 없이 '18년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을 입주자가 전액 부담(214→249만원, 세대당 월 2,230원↑)
 - 외곽 활동 경비원에게는 룽 패딩 포함 방한장비 지급

☞ 세대 당 경비원 수가 적어 인건비 상승에 따른 관리비 인상 부담의 세대 분산효과가 큰 신축 단지 등에 적합

□ 서울 은평 백련산 힐스테이트3차

○ 규모 : 10동 748세대(경비원 7명, 0.93명/100세대)

○ 입주일자 : 2011.12.22

○ 사례소개

- '17년초 전체 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서 지하주차장 전기로 활용하고, 미니태양광 43개도 설치해 전기료 42% 절감
- '18년에 인원감축 없이 임금을 인상(230→241만원)했으나, 세대당 관리비 증가는 2,223원 수준

* 휴게시간은 당초보다 소폭 증가 (주 3.3→4시간, 야 4→5시간)

☞ 현재 옥상 태양광, LED 조명 등이 많이 설치되지 않아 에너지 절감 여력이 큰 단지에 적합

□ 대전 누리아파트

- 규모 : 16동 1,704세대(경비원 32명, 1.88명/100세대)
- 입주일자 : 1994.10.31
- 사례소개
 - 경비원을 감원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 격일 24시간 야간 근무제를 없애고, 2개조로 구분하여 출퇴근제* 시행
 - * 32명중 1조(16명, 6시~14시 근무), 2조(16명, 14시~22시 근무)
당직 근무는 2조 근무자 중 4명만 교대로 근무
 - 명목상의 휴게시간을 없애(주 3시간, 야 5시간 → 일 1.5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주휴수당은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보전(174→183만원)

□ 대전 선비마을 2단지

- 규모 : 11동 1,146세대(경비원 14명, 1.2명/100세대)
- 입주일자 : 1999.10.12
- 사례소개
 - 야간근무 폐지 및 무급 휴게시간 축소(주 2→1.5시간, 야 5→1시간)를 시행하고, 야간에는 시설기사(2명), 경비원(1명)이 당직근무
 - 세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대별 인터폰을 시설과로 연결하고 인근 지구대 순찰 강화 협조 요청
 - 경비원 실 급여는 소폭만 인상(182.6→183만원)하되, 퇴근을 통해 근무강도를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 지구대가 인근에 있는 등 야간 경비의 필요성이 적은 단지에 적합

유형4

연차(무급휴일) 확대

□ 부산 양정 거제 유림아시아드 아파트

- 규모 : 14동 1,330세대(경비원 18명, 1.4명/100세대)
- 입주일자 : 2001.9.22
- 사례소개
 - 경비원을 감원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 월 1회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하고, 휴무일에는 인근 초소와 비상연락체계를 가동
 - 월 1회 휴무일을 가져 경비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급여는 12만원 인상(158→170만원)

☞ 야간경비 필요성이 있어 출퇴근제를 적용하기 어렵지만, 일요일 등 특정일에 주민 민원 및 경비 업무가 적은 단지 등에 적용 가능

유형5

휴게시간을 늘리되,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

□ 삼성래미안아파트

- 규모 : 13동 845세대(경비원 16명, 1.9명/100세대)
- 입주일자 : 2001.12.21
- 사례소개
 - 고용유지를 위해 휴게시간을 늘렸지만(주 3.5→4.5시간, 야 4시간 동결), 급여를 인상(182→200만원)하고, 휴게시설을 확충
 - 경비원 휴게실을 마련(소파, TV 등)하고, 야간근무 중 교대로 쉴 수 있도록 1인 1실의 침실(3개) 설치, 초소에도 에어컨과 난로 설치

☞ 근무 일 수 및 근무시간 단축이 어려운 단지의 경우 고려 가능